



“책 찾아 멀리 가지 마세요”

분당에 영풍문고 10번째 지점 오픈
지역 특색에 맞는 ‘문화놀이터’로
인근주민 타깃으로 한 마케팅에 주력

영풍문고 10번째 지점 분당점… ‘죽은 건물’ 예의 입지 확정, “쉬운 걸
정만은 아니었다”

서점의 대형화는 독자들로 하여금 책 구매 공간을 넘어 문화공간
으로서 인식을 갖게 했다. 오가며 들러 다리를 쉬게 하거나 눈치
볼 것 없이 책을 펼쳐보는 행위는 이제 자연스럽다. 아예 서점 측
에서 의자를 무더기로 내주는 곳도 있으니 독자들의 행복하다.

지난 7월 1일 개점한 영풍문고 분당점은 분당 주민들에겐
더없이 반가운 소식일 터다. 지하철 분당선 오리역과 가까운 오리
CGV빌딩 3층에 있어 찾아가기도, 오가기도 쉽다.

“그동안 이 지역에서선 서현역에 있는 서현문고만이 독보적인 자리
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근처 주민들은 찾아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저희는 용인, 수지, 죽전 쪽 시민들을 주요고객으로 삼고 있습니다. 서현문고
와는 시장 위치가 달라요.”

권재근 지점장은 영풍문고에서만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베테랑 영업자다. 종로점, 인천점에서 근무하다 영풍문고 분당점
지점장으로 발령받고 나서는 나름의 마인드로 꾸려갈 것이라는
포부가 앞섰다. 하지만 입점을 확정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서점이 들어선 건물 주변은 상권이 그리 발달하지 않은 데다 1층
은 미분양 상태이기 때문이다. 주로 가전제품을 염가 판매하거나
핸드폰, 의류 등을 할인 판매하는 장소였다. 상인들 사이에서 ‘죽

은 건물’로 통하다보니 반짝 호기심을 끌다 없어질 상점들이 들고
나기를 반복했다. 그 때문에 권 지점장으로서선 어려움이 무척 컸다.

“건물 1층은 비어 있는 데다가 2층은 침구매장이예요. 침구류는
시기를 타는 장사다보니 사람들이 꾸준히 찾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서점을 이곳으로 낸 것은 순전히 영화관에 기대하는 바가 컸기 때문입니
다. 영화관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점 앞을 지나게 돼 있거든요. 서점
앞에 자리한 패스트푸드점도 입장이 같습니다. 건물 자체는 영화관 영향을
많이 받아요. 주차장이 무료인 것도 결정적 이유였지요.”

권 지점장은 “영화관에 관람객 대기공간이 좁아 티켓을
끊고 기다리는 시간을 이용해 서점으로 발을 옮기는 고객들이 많
다”고 말한다. 물론 영화 관람을 앞두고 책을 구매하는 사람은 많
지 않다. 책을 구경하고, 잠시라도 읽고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
다는 평가다.

어린이 독서공간 확대, 분당의 지역적 특색 충족하는 서점으로 거듭날 것
“지점은 무엇보다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
지점장의 지론. 분당점 개점을 준비하면서 가장 역점에 둔 것이
기도 하다. 종로, 강남과 같은 변화가에 입점한 서점처럼 약속장소
로 활용되지 못할 바엔 애초 인근 주민들을 타깃으로 한 마케팅에
주력해야 한다는 얘기다.

“오래 근무하다 보면 지점마다 고객들이 책을 고르는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분당점을 개점하면서 ‘수준 높은 서점을 만들어보지’는 계획을 세웠는데 고객들도 그것에 충분히 상응하는 편이에요. 특히 학교가 밀집돼 있는 이곳은 교육열이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때문에 아이들 책이 많이 팔리고 있어요. 요즘 서점들은 책 진열에 그쳤던 이전과는 달리 아동매장에 따로 이름을 붙여 꾸미고 있는 추세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더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분당점도 아동매장을 넓히는 공사를 준비 중이다. 서점 안에 있는 문구점까지 자리를 늘려 아이들의 독서공간을 마련하는 작업이다.

권 지점장은 “아이들이 서점에서 편히 책을 읽게 하는 것도 독서교육인 셈”이라며 “책을 파는 장사꾼 입장에 있지만, 그보다는 좋은 책이 많은 아이들에게 읽혔으면 하는 바람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반가운 서점’ ‘아담한 서점’ 고객들의 다양한 반응

평일 낮에도 서점 안은 북적거렸다. 아이와 함께 온 부모들이 대다수였고 영화를 보러 왔다가 짬이 나서 잠시 들른 듯한 젊은이들도 눈에 띄었다. 주택단지와 가까운 곳에 서점이 있다보니 편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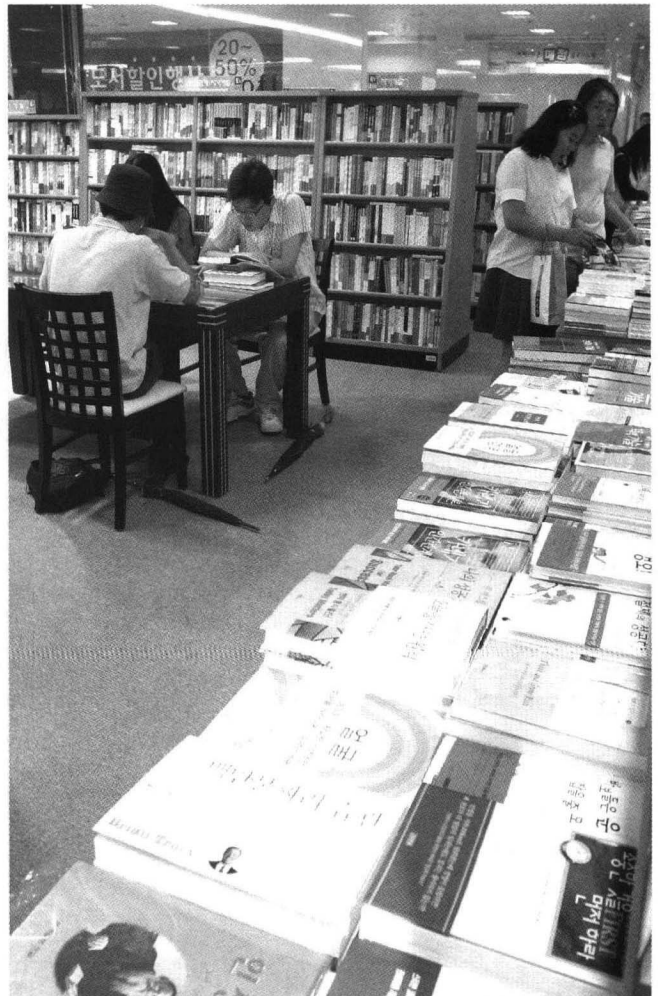
수지에 사는 권순희(주부) 씨는 “분당 유일의 대형서점인 서현문고까지 아이들을 데려가기엔 너무 멀어서 주로 도서관을 이용했는데, 영풍문고 분당점이 생겼다는 소식에 반가워서 오게 됐다”며 “진작 있어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도서 종류가 많아 아이들 책도 보면서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분야의 서적도 다양하게 접해 볼 수 있어 좋다고 했다.

어학도서 코너에서 책을 고르고 있던 유선종(회사원) 씨도 같은 의견이다. “바쁜 업무 때문에 서점에 자주 못 가지만, 가더라도 종로 쪽을 찾았는데 분당에 이런 곳이 생겨서 다행”이라는 유씨는 “영화를 보러 나올 때도 가까이 있어 자연스럽게 들르게 된다”고 말한다.

서점을 처음 찾은 김윤경(주부) 씨는 아이와 함께 앉아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김씨 역시 “아이가 어려서 멀리 가지 못했는데 집 근처에 대형서점이 생기니 앞으로는 자주 이용할 수 있겠다”며 만족해했다.

서울에 사는 김유경(학생) 씨는 영풍문고 분당점이 생겼다는 소식에 영화도 볼 겸 일부러 이곳을 찾았다. 종로에 있는 서점을 주로 찾는다는 김씨는 “서울 시내 대형서점들에 비하면 아담한 분위기지만 근처에 산다면 부담 없이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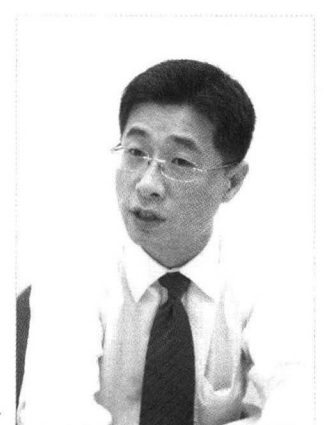
권 지점장은 2006년 매출목표를 100억 원으로 잡았다. 사람이 많이 붐비는 시내에서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치를 굳이 설정한 것은 그만큼 분당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책읽기’를 시도하겠다는 의미다. 개점 이후 한 달동안에는 권 지점장 스스로도 만족할 만한 성과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분당점을 키워나가겠다는 생각만큼 부담감도 큼니다. 사실 지점에서는 사인회도 하기 힘들거든요. 현재는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견학기회를 내주고 있지만 문화적인 행사도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관심이 ‘교육’인만큼 그것에 관한 강연회 등에 주력하며 꾸려갈 생각이예요.”

영풍문고는 7월 1일, 열 번째 지점인 분당점을 시작으로 8월 20일 서수원점, 이달 2일 죽전점을 개점했다. **▶▶**

취재_홍이현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영풍문고 분당점
권재금 지점장